

2005년도 인쇄문화대상 수상자 확정

경영부문 이광옥 (주)홍보컴대표

특별부문 이창석 목활자무형문화재

기술부문 고광민 삼화실업(주) 대표

진흥부문 김충진 한국이앤엑스대표

2005년도 인쇄문화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최근 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2005년도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로 경영부문에 이광옥(주)홍보컴대표이사, 기술부문에 고광민 삼화실업(주)대표이사, 특별부문에 이창석 목활자무형문화재, 진흥부문에 김충진 한국이앤엑스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14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부포상식과 함께 열린다.



경영부문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광옥 홍보컴 대표이사는 1949년 생으로 1967년 인쇄업계에 입문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업인쇄 및 특수인쇄물 개발에 헌신해 왔다. 특히 선진국에 뒤져 있던 특수인쇄분야의 기술 개발에 몰두, 지금은 해외로 수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수인쇄분야의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3년 열린 아시아인쇄물컨테스트에서 라벨부문 금상, 포스터부문 은상, 캘린더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또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서울인쇄정보조합의 이사로 참여, 단체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2002년에 열린 청주인쇄출판박람회를 후원하는 등 인쇄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기술부문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고광민 삼화실업(주) 대표이사는 1938년 생으로 조선대학교를 나와 곧바로 제관인쇄와 인연을 맺은 이래 지금까지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 고 사장은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제관인쇄의 기술개발과 저서발간, 후진양성, 인쇄고무 롤러 개발 등에 헌신, 제관인쇄분야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보호 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고 사장은 복인천이업종교류회장, 한국기록보존협회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2004년에는 아산시기업인 대회에서 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별부문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창석씨는 강원도가 지정한 목활자 무형문화재로 각자 장인이다. 1954년생인 이창석씨는 1978년부터 각자를 시작,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활자와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한인쇄문화협회 인쇄역사박물관, 서울인쇄정보조합 홍보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에 자신의 작품을 제공했다. 강원도 고성에서 강원서각을 운영하며 활자복원에 헌신해 오고 있는 이창석씨는 월인석보, 훈민정음, 집왕성교서, 동국정운 등 수많

은 목판과 목활자를 복원했다. 부친 이동 각 옹으로부터 목각 기술을 전수받은 이창석씨는 철저한 고증과 자료 수집을 통해 우리나라 고인쇄문화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진흥부문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김충진 한국이앤엑스 대표이사는 1953년 생으로 고려대학교를 나와 서울경제신문에 입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산업의 외길을 걸어 오고 있다. 특히 1978년 제1회 KIPES(국제인쇄산업전시회) 주최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한번씩 인쇄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전과 국산인쇄기기 개발 및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또 2001년부터는 PRINKOR(국제특수인쇄전시회)를 역시 매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하여 특수인쇄분야의 기술증진과 관련기기 개발에 공헌했다. 김 사장은 이같은 공로로 2001년 무역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1998년 한국일보전시국에서 법인 전환된 한국이앤엑스 대표이사에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김 사장은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올해부터 인쇄문화상을 인쇄문화대상으로 격상하고 진흥부문을 신설했다.